

마태복음 26장 47-56절 말씀

<1>

①

- 47 말씀하실 때에
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
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
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
48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
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

②

- 49 곧 예수께 나아와
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
50 예수께서 이르시되
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

③

- 이에 그들이 나아와
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

<2>

①

- 51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
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
52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
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
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
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
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
54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
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

②

- 55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
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
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
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
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

③

-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